

“전남 국립의대 신설·정원 배정해달라”

전남도의회·사회단체, 정부에 건의 2026년 입시요강 정원 방침 밝혀야

전남도의회와 전남지역 사회단체들이 전국 대학의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입시 요강) 확정을 앞두고 정부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 배정'을 건의했다.

전남도의회는 21일 정부가 이달 말 확정할 입시요강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2025학년도 의대별 자율 모집인원을 1500여 명으로 잠정 확정했다. 기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감안하면 500여 명의 여유 정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회 방침이다.

전남도도 '2026학년도 의대 신설 정원'을 배정받은 뒤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도민의 의견 수렴과 대학 선정 절차를 거쳐 올 9-10월경 정부에 추천이 가능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발언이 곧바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전남도도 이같은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인데, 대학·자치단체가 오히려 받아들이

일 수 없다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위기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전남도와 함께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체계 완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3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도 이날 교육·복지부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방침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가 입시요강에 정원 배정 방침을 밝혀야 정부 합동 답화문에서 약속했던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복귀 전공의 31명...정부 "상황 해결하려는 움직임 없어"

집단행동 중단 건설적 대화 촉구 의협, 대통령실관계자 처벌 기자회견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21일(오후 5시) 현재 복귀한 전공의는 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이달 20일 전공의 출근자는 이달 17일 보다 31명 증가한 659명이었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5.1% 수준이다.

박 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 있다"며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 만큼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도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단체에 두 달여 만에 재차 공개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1일 40개 의과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3월 11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의대협으로부터 답변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회(의협)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무책임한 말로 의정 대화를 막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의협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우리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계도를 망쳐온 복지부 관료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아삭아삭 봄 햇김치 맛보세요”

광주시, '봄 햇김치 사랑나눔 행사' ...23~26일 김치타운

광주 김치를 맛보고, 체험하고, 기부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김치타운 다목적체험관 등에서 '매일이 김치! 매일이 감동!'을 주제로 '봄 햇김치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에 참여했던 시민이 김장철 외에도 광주김치타운에서 언제든지 광주김치를 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첫 연중 행사다.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은 매일 '이달의 김치'를 선정해 계절에 맞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 접수를 통해 시민의 김치담그기와 기업·단체의 기부행사로 진행된다.

나눔행사는 23일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우호남청과(대표 고인수)와 두레청과(주)(대표 한수영), 2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이미진)에서 김치를 취약계층에 기부한다.

체험행사는 24일과 26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무김치, 얼갈이김치, 파김치를 담근다. 개인

및 기업·단체 최대 30명(수용인원 100명 이내)이 참가할 수 있으며,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 누리집(www.kimchigwangju.co.kr)과 김장대전 사무국(062-613-3601~3602)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치담그기는 매달 열리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는 김장대전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주최의 광주경제산업국장은 "광주김치타운에 오면 언제든지 광주김치를 맛 보고 담갈 수 있도록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을 주말에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챗GPT 활용, 정책 콘텐츠 기획·홍보한다

전남도, 도정 활용 예산 편성

전남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해 정책 콘텐츠 기획 및 홍보를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생성형 AI를 도정에 도입,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전남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하기 위한 예산 9780만원을 책정,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인공지능기술을 도정에 접목하기 위한 첫 시도로, 특화GPT 제작(8000만원), 생성형 AI 활용 교육 및 경진대회(960만원) 등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예산안 통과 이후 ▲미래첨단산업 ▲농·수·축산업 ▲복지 ▲문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남 맞춤형 특화 GPT(챗봇)를 제작한 뒤 챗봇을 만들어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인 'GPT스토어'에 올려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전남을 홍보하겠다는 구상이다.

GPT스토어는 '나만의 챗봇'을 골라 쓸 수 있는 시장으로, 기존 '앱스토어'에서 내가 필요한 '앱'을 골라 쓰는 것처럼 'GPT스토어'에서는 사용자에 필요한 '챗봇'을 골라 쓸 수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김영록 전남지사의 방침에 따라 챗 GPT를 활용한 도정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챗 GPT 활용 전담반'(TF)을 구성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해 '챗 GPT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 발전 방향 논의

전남도가 직류산업의 글로벌 혁신 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을 갖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오는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나주 일대 12.1km²에 이미 구축된 중앙직류(MVDC) 스테이션을 활용, 직류 배전망(35kV→5kV→1.5kV) 실증 인프라 구축과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전력기자재

실증, 인종 획득 및 해외 진출까지 연계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전남 에너지산업 중앙직류(MVDC) 실증 모형'을 전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실증 모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시작으로 송배전, 전기차(EV) 충전스테이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대형 빌딩, 공장 및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체계 등으로 이뤄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뭣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 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매매

010-3605-500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光州日報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노방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약구독 (062) 220-0550